원작 소설 읽고 영화 이야기 나눠요

20세기소설영화독본 '렛 미 인', '하워즈 엔드' 등 12월 21일까지 13회 진행

무등도서관서 소설·영화 만나다 '연인' 등 중단편 위주 15일부터 10회 열려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경험.

소설영화동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과 '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무소영)가 하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특히 '무소영'은 코로나 19로 2년 넘게 프로그램을 쉬고 있던 터라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다. 20세기 소설영화독본은 장편소설을, '무소영'은 중·단편 소설을 주로 읽는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

20일부터 오는 12월21일까지 모두 13차례 진행되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20일 하반기 첫 모임의 소설과 영화로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선택했다. 스티그 라르손의 소설 '밀레니엄'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은 한 소녀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이 인종차별과 나치즘이 얽힌 역사적 범죄사건의 진실을 찾다가 연쇄살인과 맞닥뜨리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여성들이 당하는 모든 형태의 고통과 차별을 치밀하게 묘사해내며 '페미니즘 추리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은 스웨덴에서 먼저 영화로 완성됐고, 뒤이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스웨덴에서 제작된 영화를 만난다.

8월 3일에는 '자기 앞의 생'과 함께 한다. '자기 앞의 생'은 로맹 가리(1914-80)가 1975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그 해 콩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장해가는 모모와 로사 아줌마의 혈육을 넘어선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영화 '자기 앞의 생'은 소피아 로렌이 로사를 연기했고, 그녀의 아들인 에도아르도 폰티가 연출을 맡았다.

많은 영화팬들을 사로 잡았던 토머스 새비지의 소설 '파워 오브 도그'는 영화감독 제인 캠피온과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만남으로 하제를 모은 작품이다.

이밖에 코맥 매카시의 원작과 영화를 만나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오쿠다 히데오의 동명 원작을 임순례 감독이 영화로 만든 '남쪽으로 튀어', 숀팬이 메가폰을 잡은 존 크라카우어의 '인투 더 와일드' '렛 미 인', '맥베스', '하워즈 엔드', '레이스 짜는 여인' 등 유명 작가들의 원작을 읽고 이를 영화화한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모임은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중단편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을 만나는 '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무소영)도 18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첫 영화 '춤추지 않으시겠습니까?'는 1980년대 미국 단편소설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이다. 로버트 알트먼 감독의 '숏'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직접 각색해 영화로 만든 댄 러쉬 감독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마당 세일'이란 소재를 통해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밖에도 조지 오웰, 안톤 체홉, 존 치버, 무라카미 하루키 등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작가들이다. 이 작가들의 소설이 어떻게 영화로 변모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스태린 큐브릭 감독과 아서 클라크가 만난 '2021 오딧세이', 제인 마치의 연기가 인상ㅈ경닌 마라그리트 뒤라스의 '연인'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안톤 체홉의 '아내' '윈터 슬립',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최윤 소설과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 이마무라 쇼헤이 '나라야마 부시코' 등도 대기중이다.

두 강의 모두 '동구 인문학당'의 프로그램 디렉터 조대영 씨가 책임 진행을 맡는다.

12월 5일까지 모두 10차례 은 무등도서관 1층 대회의실에서 격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는다. 문의 010-4660-5792, 062-613-77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파워 오브 도그'

'연인'

제12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입상자들.

오월창작가요제 '쩔뚝쩔뚝 봄' 대상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공개 유튜브 채널 통해 관람

제12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오후&성지송'의 '쩔뚝쩔뚝 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오월음악은 지난 2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올해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을 열고, 1, 2차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총 8개의 팀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한 오후&성지송의 '쩔뚝쩔뚝 봄'이 선정됐다. 곡은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로인해 이제는 봄이 왔지만 아직도 분열의 아픔으로 완전한 화합을 이뤄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어쿠스틱 기타와 첼로, 젬베와 건반 사운드로 묵직하게 그려냈다. 대상 수상자인 오후&성지송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창작지원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금상에는 조민규의 '발장구'가 선정됐다. 곡은 뉴스를 봐도 답답하기만 한 현대사회의 현실에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노래했다. 은상은 기억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그 역할로 노래가 갖는 큰 힘을 믿기에 잊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연대하자고 외치는 덕호씨의 '노래'가 수상을 안았다. 동상은 안온의 '당신은 봄을 믿어야 해요'로 희생자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남은 이들이 생생한 봄날의 푸르름과 생명력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수상했다. 이 밖에 87, EOS, The smir, 은비×나은×석근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본선에 입상한 8곡은 4일 낮 12시부터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본선 영상은 오월창작가요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레에다 감독 '브로커' 뮌헨영화제 최고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영화 '브로커'〈사진〉가 제39회 독일 뮌헨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3일 뮌헨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폐막과 함께 영화제 최고상에 해당하는 아리 어워드(ARRI Award) 수상작으로 '브로커'를 선정했다.

'브로커'에서 버려진 아기를 팔러 다니는 상현을 연기한 송강호가 지난 5월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고레에다 감독은 2018년에도 '어느 가족'으로 뮌헨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배우 시벨 케길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은 "그리움과 결단력, 우회로 가득 찬 영화다. 우리가 자신과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 때때로 인생에서 따라야 하는 우회로"라며 "이 영화에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이 영화제 경쟁 부문인 시네마스터스 섹션에는 '브로커'와 샤를로트 반더미르히·펠릭스 반 그뢰닝엔 감독의 '여덟 개의 산', 사에드 루스타이 감독의 '레일라의 형제들' 등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을 포함해 모두 열 편이 초청됐다. /연합뉴스

걸어서 세계속으로·세계테마기행, 2년여 만에 새 여행지 소개

캐나다·노르웨이·튀르기예 등 촬영

코로나19로 제작이 중단됐던 해외 탐방 프로그램들이 최근 하늘길이 뚫리면서 2년여 만에 새 여행지를 소개한다.

KBS 1TV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든 뒤 해외 현지 촬영을 새로 한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오는 9일부터 방송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2월 해외 촬영이 중단된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여행지는 캐나다다. 방송에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캐나다 서부의 청정한 자연 풍광이 담긴다.

16일에는 아름다운 산호 해변과 먹거리,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로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북마리아나 제도 구석구석을 담은 영상이 방송된다.

23일에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노르웨이, 30일에는 대서양의 낙원, 카나리아 제도 섬들이 소개된다.

EBS의 해외탐방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도 오는 4~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새로 촬영한 방송 분량을 내보낸다. '세계테마기행' 역시 코로나19로 2020년 5월부터 기존 방송을 편집한 스페셜 방송을 해왔다.

방송에는 항아리 케밥, 만두와 비슷한 음식인 만트 등 세계 3대 미식의 나라로 꼽히는 튀르기예의 다채롭고 풍성한 음식이 소개된다. 또 기기묘묘한 기암괴석이 가득한 풍광 등도 담긴다.

/연합뉴스